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 건 철



대다수 어려운 국민들이 제18대 대선에 거는 관심과 기대는 어느 대선보다 크리라 생각된다. 최근 5년간 충산층 이하의 생활이 어려워져 자신들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갈망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바랄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의 실정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상황과 맞물려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경제에 이르고 있다. 소득은 줄어들고 부채만 늘어나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가계부채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7년 595조 원에서 1,000조 원에 달하여 가계신용 부실로 인한 후폭풍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로는 910조 원대로 발표되고 있으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까지 더 합한다면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1인당 20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삼이며, 가계부채/소득 비중이 160%대에 이르고 있다. 미국(128%), 일

본(135%), OECD 평균치(135%)는 물론, 미국 경제위기를 축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당시 수준(138%)을 상회하고 있어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부는 증가세가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후보 역량·자질 검증기회 확대해야

될 것이 없다고 향반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경제대란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당내 경선부터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 혐법 등 민생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논제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다. 여권은 5·16과 유신에 대한 역사의식 논란에 공천비리로 허송세월하고 있고, 야권은 친노와 비노, 영남과 호남간 지역색 논란만 가열되고 있다.

여·야 모두 '누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적임자인가'에 대한 논쟁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선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응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선거의 감독관이라 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후보별 역량과 자질을 유권자에게 알리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후보별 역량 판단기회는 당내 경선 때부터 충분히 부여되어야 하며, 질문내용이 정치적 내용보다는 후보자별 국정 철학과 비전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있지도 않은 '대세론'만 강조하거나 전국적 조직력이나 자금력을 가진 후보자만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여론조사 상 선두권에 있는 후보자가 국정을 책임질 능력과 자질이 풍부해서라 기보다는 준비기간이 길어 인지도가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성공한 대통령을 찾아보기 힘든 점이 바로 국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춘 역량보다는 오랜 선거 준비로 인해 높아진 인지도가 주요 선택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늦게 출발하여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에게도 보다 적극적이고 가혹한 검증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둔 미국이 후보자간에 견강보합개혁과 대체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을 그저 남의 일로 보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 가운데 우리에게 만만한 것은 거의 없다. 모두가 우리에게 악재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18대 대통령의 책임이 크고, 어려운 역량을 슬기롭게 해쳐나갈 역량과 자질을 갖춘 자가 선출되어야 한다. 남은 4개월 동안 인지도나 조직력, 이념보다는 역량과 자질이 겸증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김 병 수

휴가차 들른 시골길에서 학교와 우체국이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의 여유로 문인지초등학교 졸업 때 우체국장장 받은 기억도 나고, 내 인생에 학교가 어떤 의미였는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에 대한 생각은 아래 정보통신(IT)정책 담당시 고민하던 융합(convergence)이라는 단어를 고리로 학교와 우체국이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로 꼬리로 꺾여졌다.

교육은 개인에게는 물론 백년지대계라 하듯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다. 교육은 또한 매우 어려운 것 있어서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가장 낡고 가장 새로운 과제라 하겠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IT기술이 고도화되고, 글로벌화가 심화되어 삶의 시공간이 양적 질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는 더욱 그려하다 하겠다. 소견에 교육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삶의 가치를 증진하는 합리적 선택과 실천 역량을 길러주는 것 아닌가 한다. 전자가 지성에 관한 것이라면 후자는 인성에 관한 것이라

학교와 우체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단상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IT기술과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 지성과 인성의 합양을 위한 교육의 요체는 무엇일가 생각해 본다.

오늘날 지성의 문제는 지식의 융합과 창조에 있다는 데 대체적인 동의가 있다. 개별 현상에 대한 단편적 지식은 일반상식으로 여겨지고, 더구나 IT기술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새로운 지식은 종래 연관성이 맵다고 여겨졌던 현상을 사이의 새로운 관계와 패턴의 발견에 있다 하겠다. 아울러 그려한 발견 역량은 어떤 현상으로부터 더 깊은 영감과 상상을 낳을 수 있는 높은 감수성과 생각의 결과물을 의미 있게 엿볼 수 있는 사고의 지구력에 있다고 본다.

최근 새로운 차원의 올립픽 개막식 행사 를 보여준 영국은 창조국가를 모토로 산업은 물론 교육과정에서도 최근 회자되는 콘텐츠, 스토리텔링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교육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단편적 정보를 주입하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은 염려되는 바 같다.

그러면 높은 감수성과 사고의 지구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글쓰기가 아닌가 한다. 글쓰기야말로 단순한 검색과 읽기를 넘어 학생들로 하여금

다. 이렇게 보니 글쓰기를 포함하는 편지쓰기야말로 지성과 인성교육에 가장 유효한 매체가 아님か 한다.

어찌보면 이 시대 학부모 융합은 결코 산업경영자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하겠다. 융합과 제휴는 각급 공공기관에도 일상의 업무규정집에서 벗어나 그 기관에 부여된 가치 탐색을 더욱 깊이하고 나아가 그 가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행동역량을 새롭게 키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조급하고 서투르게 교육과 융합에 관한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학교와 우체국간 파트너십에 대한 욕심으로 내닫는다. 그것은 우체국의 궁극적 가치 또한 물리적 배달(delivery)이 아니라 소통(communication)이며, 편지야말로 우체국이 지향하는 핵심 소통매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우체국에서는 학교졸업식에 우체국장을 주거나, 금융경제교육을 하는 등의 일회적 협력에서 나아가 학교의 문화·체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우체국이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는 우체국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나누는 '우체국·학교 Dream 파트너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전남우체국이 문화와 창조를 지향하는 전남지역사회 발전에 작으나마 힘이 되는 길이라고도 하겠다. 이러한 생각과 노력에 대하여 교육이나 우체국에 관심이 높은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전남지방우정청장〉

법률이 아니니 헌령 금액이나 죄질,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정한 판결이거나 또는 조문은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김승연 회장 즉 변호인의 이름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변호했다고 변호사들끼리 비난하는 말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모든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쓰여 있으며 변호사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직업에 불과하다.

또 네이션즈 사이에 세상에 가장 훈든 직업이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발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든 한화 선수들이든 김 회장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모두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해주길 바란다. 필자는 KIA 펜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프로야구팬이고, 프로야구 관도가 재미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변호사〉

법률이 아니니 헌령 금액이나 죄질,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정한 판결이거나 또는 조문은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김승연 회장 즉 변호인의 이름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변호했다고 변호사들끼리 비난하는 말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모든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쓰여 있으며 변호사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직업에 불과하다.

또 네이션즈 사이에 세상에 가장 훈든 직업이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발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든 한화 선수들이든 김 회장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모두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해주길 바란다. 필자는 KIA 펜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프로야구팬이고, 프로야구 관도가 재미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변호사〉

법률이 아니니 헌령 금액이나 죄질,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정한 판결이거나 또는 조문은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김승연 회장 즉 변호인의 이름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변호했다고 변호사들끼리 비난하는 말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모든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쓰여 있으며 변호사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직업에 불과하다.

또 네이션즈 사이에 세상에 가장 훈든 직업이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발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든 한화 선수들이든 김 회장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모두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해주길 바란다. 필자는 KIA 펜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프로야구팬이고, 프로야구 관도가 재미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변호사〉

법률이 아니니 헌령 금액이나 죄질,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정한 판결이거나 또는 조문은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김승연 회장 즉 변호인의 이름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변호했다고 변호사들끼리 비난하는 말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모든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쓰여 있으며 변호사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직업에 불과하다.

또 네이션즈 사이에 세상에 가장 훈든 직업이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발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든 한화 선수들이든 김 회장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모두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해주길 바란다. 필자는 KIA 펜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프로야구팬이고, 프로야구 관도가 재미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변호사〉

법률이 아니니 헌령 금액이나 죄질,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정한 판결이거나 또는 조문은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김승연 회장 즉 변호인의 이름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변호했다고 변호사들끼리 비난하는 말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모든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쓰여 있으며 변호사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직업에 불과하다.

또 네이션즈 사이에 세상에 가장 훈든 직업이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발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든 한화 선수들이든 김 회장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모두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해주길 바란다. 필자는 KIA 펜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프로야구팬이고, 프로야구 관도가 재미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변호사〉

법률이 아니니 헌령 금액이나 죄질,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정한 판결이거나 또는 조문은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김승연 회장 즉 변호인의 이름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변호했다고 변호사들끼리 비난하는 말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모든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쓰여 있으며 변호사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직업에 불과하다.

또 네이션즈 사이에 세상에 가장 훈든 직업이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발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든 한화 선수들이든 김 회장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모두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해주길 바란다. 필자는 KIA 펜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프로야구팬이고, 프로야구 관도가 재미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변호사〉

법률이 아니니 헌령 금액이나 죄질,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정한 판결이거나 또는 조문은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김승연 회장 즉 변호인의 이름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변호했다고 변호사들끼리 비난하는 말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모든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쓰여 있으며 변호사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직업에 불과하다.

또 네이션즈 사이에 세상에 가장 훈든 직업이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발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든 한화 선수들이든 김 회장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모두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해주길 바란다. 필자는 KIA 펜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프로야구팬이고, 프로야구 관도가 재미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변호사〉

법률이 아니니 헌령 금액이나 죄질,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정한 판결이거나 또는 조문은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김승연 회장 즉 변호인의 이름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변호했다고 변호사들끼리 비난하는 말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모든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쓰여 있으며 변호사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직업에 불과하다.

또 네이션즈 사이에 세상에 가장 훈든 직업이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발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든 한화 선수들이든 김 회장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모두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해주길 바란다. 필자는 KIA 펜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프로야구팬이고, 프로야구 관도가 재미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변호사〉

법률이 아니니 헌령 금액이나 죄질,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정한 판결이거나 또는 조문은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김승연 회장 즉 변호인의 이름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변호했다고 변호사들끼리 비난하는 말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모든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쓰여 있으며 변호사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직업에 불과하다.

또 네이션즈 사이에 세상에 가장 훈든 직업이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발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든 한화 선수들이든 김 회장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모두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해주길 바란다. 필자는 KIA 펜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프로야구팬이고, 프로야구 관도가 재미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변호사〉

법률이 아니니 헌령 금액이나 죄질,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정한 판결이거나 또는 조문은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김승연 회장 즉 변호인의 이름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변호했다고 변호사들끼리 비난하는 말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모든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쓰여 있으며 변호사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직업에 불과하다.

또 네이션즈 사이에 세상에 가장 훈든 직업이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발 한화이글스 응원단장이든 한화 선수들이든 김 회장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모두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해주길 바